

# 건축문화 **사라랑**

Vol.057 10, AUGUST 2014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라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라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4.8

057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 특별기획-인터뷰 이낙연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와의 만남



## 인터뷰\_사람&issue 전북/서문 건축사사무소 서문용진 건축사



##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출판 전북건축사회, 강미현 건축사

## 시론 02

‘도시재생(都市再生)’ 이 화두(話頭)인 시대\_ 강필서

## 특별기획 03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 이낙연 제37대 전라남도지사와의 인터뷰

## 설계경기 04-05

전주 효자도서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공모 / 실감미디어산업 기본조성센터 건축설계공모

## 학술 06

건축물의 내풍설계에 대해서 3부 \_ 김영문

## 사람 & issue 07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가치를 창출한다.” \_ 서문용진

## 학생기고 08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주최, “2014 대학생 디자인 캠프” 참가기

## NEWS 09~11

광주건축사회, 광주 남구노인복지관에 봉사활동 / 전남건축사회 주최, ‘2014년 국제 패시브하우스 심포지엄’

## 광주건축사회 “광주 남구노인복지관 봉사활동” 나서



## 전북 전주 효자도서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당선작 : (주)윌그룹 건축사사무소 강문수, 김희순 건축사

## 실감미디어산업 기본조성센터 건축공사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오금열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임태형 건축사

# ‘도시재생(都市再生)’이 화두(話頭)인 시대



강필서 건축사  
(주)공간중인 건축사사무소  
a3a4@korea.com

우리 건축사들도 준비와 대응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도시재생을 이끌어 갈 최적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이용자와 함께 삶의 공간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건축사들의 책무가 아니던가!

한 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아나바다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적이 있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약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취지와 의미가 똑 같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흐름이 삶의 공간을 다루는 분야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재생’이다.

공간을 재생한다는 것은 단순한 절약운동이나 통상적인 리모델링의 범주를 벗어나 훨씬 더 광범위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다. 방식 또한 철거 후에 재개발하는 기존의 양상과는 확연히 다르게, 과거의 흔적과 기억을 보존하며 진행된다. 즉, 재생이란 ‘활용도가 낮아진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다시금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도시재생’은 지방정부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작게는 구도심 활성화 또는 슬럼화 방지로부터, 크게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도시재생의 바람은 일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학동 팔거리 백화마을 등의 사례를 전파하기도 하고, 타도시의 사례를 답사하는 도시재생투어를 지원하기도 하면서 시민들에게 화두를 제시함과 동시에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양림동 역사마을 정비, 광주폴리길 조성, 도심재생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아이디어 발굴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주로 하는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며, 다른 대안으로써 재생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 역량부족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 과정은 더디기만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로 난항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며, 관행과 가시적인 효과에 치중하는 행정기관의 성리वाद 맞지 않아 마찰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조정·자문하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시재생 전문가도 태부족인 실정이다. 한마디로 과도기에 접어든 것이다.

따라서 구도심을 되살리는 방식이 재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혼란과 시행착오는 감내해야 하며,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도시재생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비롯한 전담조직과 지원기구 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도시재

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법정 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 조례에는 시민들의 합의가 반영되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내포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참여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재생의 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는 이기주의와 횡금만능주의 및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공동협약에 대해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별법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8장에 새롭게 등장한 건축협정은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유용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합의하여 협정을 체결할 경우, 협정이 체결된 대지 전체는 일괄적인 법적용을 받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건축협정 규정은 동명동이나 산수동처럼 작은 골목으로 연결된 주거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이기에 전문성에 대한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공공건축가제도, 총괄계획가(MP) 혹은 총괄건축가(MA)제도를 활용하거나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은 마땅히 건축사가 해야 한다. 그것이 삶의 공간을 다루는 전문가인 건축사의 기본업무이자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사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시재생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 도시재생은 건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적용될 수도 있다. 건축물은 지경재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여부를 떠나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경제논리와 개발논리에 의해 사라지는 참극은 크게 줄어 들 수 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보존가치를 조사하고 활용방안을 발굴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대적·사회적 요구로서 도시재생의 화두는 던져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도 제정되었고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되었다. 그 이전에도 몇몇 성공사례가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공감대 형성을 거쳐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 내야 하고, 실행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미 도시재생사업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도시재생사업은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시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재생을 통해 정체성과 활력을 되찾아 가는 도시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

midas eGen 과 midas Drawing이 만들고 있는  
설계 업무의 변화를 웹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사님과 실무자분들을 위한 건축설계 통합 사이트

www.midasarchi.com

제품 도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갑니다.

방문/상담 신청





#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 이낙연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와의 인터뷰

건축문화사랑 신문에서는 지난 7월 1일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4년 호남지역발전을 책임질 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기획하였고, 그 첫 번째로 7월 중 전라남도 이낙연 도지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향후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북도지사와의 인터뷰 또한 추진할 계획으로 독자들은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이낙연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

- 생년월일 : 1952. 12. 20. (만 61세)
- 출신지 : 전남 영광
- 학력 및 병역
- 영광군 법성면 삼덕초등학교 졸업
- 광주북중학교 졸업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육군 병장 만기 제대
- 주요 경력
-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논설위원, 국제부장
- 4선 국회의원(16, 17, 18, 19대)
- 민주당 대변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전남도당위원장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장
-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수석부회장
- 제37대 전남 도지사 (현)

**반갑습니다. 이낙연 도지사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며 제37대 전라남도지사로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민여러분의 분에 넘친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주신만큼 기대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저의 신명을 다 바쳐 전남과 도민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전남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희망도 느끼지만 만만치 않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남의 자연환경은 '생명의 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갖춘 지역입니다. 전남을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 쉬고 즐기며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생명의 힐링 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지역 선배님들, 전현직 장관, 국회의원, 학계, 경제계 CEO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전남 발전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해 가겠습니다.

## 민선6기를 맞아 전남도정의 비전과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6기 도정의 목표를 활기, 매력, 온정으로 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기찬 전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등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농수축산업을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같은 기존 주력산업의 애로 타개와 활로개척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업의 유치 또는 육성을 돕겠습니다.

둘째, 전남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음식과 도민의 일상 등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해 분야별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전남을 '관광보고'이자 '힐링기지'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남도음식 차별화, 다도해 해상관광 선도, 전국수학여행단·전지훈련 등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및 목포·여수·광양 크루즈선 유치, 내륙관광객 타깃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정이 넘치는 전남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식생활, 주거, 의료, 교육 등 제반 분야를 온정으로 살피고 배려하는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통해 인구 200만명을 회복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윤장현 광주시장과 도지사님이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약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님(현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민선 6기에 시도의 공동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7대 광주-전남 현안과제로 '신 영산강시대 상생발전 정책 수립'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고속 건립', '무안공항 활성화', '한빛(영광)원전 안전성 확보',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역할 제고'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협약하였고, 이를 위해 8~9월 말까지 '광주-전남상생발

전위원회(가칭)' 출범 및 산하 집행기구로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12월 말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협력 시스템 복원을 통해 지역발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공약으로 평가받은 100원 택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100원 택시 개념'은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마을의 주민들이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면 순번제로 택시를 이용해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리면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도내 6,650개 마을 가운데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은 316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어렵고 생필품 구입을 위해 장보러 가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금년 순천시와 무안군에서 농식품부 시범공모사업에 선정, '마중버스(25인승 소형버스를 이용하여 마을~버스정류장까지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하루 2~3회 운행/15개마을)'와 '행복택시(버스요금[대당 1,200원]만 내고 택시를 이용, 읍면소재지, 병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곳까지 운행)'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100원 택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 중 도와 시군의 관련조례 제·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오는 2018년까지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도민과 독자들께 당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남은 훌륭한 선조들의 혼이 살아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직시하면서 생각과 태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 보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저의 좌우명은 근청원견(近廳遠見)으로 가까이 듣고 멀리 본다는 뜻입니다. 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도민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그 말씀을 정책에 반영할 때는 멀리 보면서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건축문화사랑 신문과 독자들에게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신사옥 이전



- 업종 : 건축설계 · 감리 / 시설물 유지관리 / 정밀안전진단 / 벤처기업
- 특허 · 제진형 가새장치 및 이 가새장치를 이용한 브레이싱 공법(특허 제 10-1176374호)
- 길이조절기능을 갖는 제진형 가새장치 및 이를 이용한 브레이싱 공법(특허 제 10-1332602호)
- 유리섬유망을 이용한 구조체 보강공법(특허 제 10-1061822호)
- 탄성 모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특허 제 10-1156460호)
- 나선형 파일(특허 제10-1420685호)



상세주소  
구)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6-3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명철

안녕하십니까.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명철입니다. 이번 2014년 6월 신사옥으로 확장이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2000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매니아ENG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꾸준한 기술축적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 및 세련된 건축물을 창조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더 성장하는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09번길 41-1 (주)에이엠지그룹 사옥  
Tel : 062-528-1993 / FAX : 062-523-0764 / 홈페이지 : http://amg-group.co.kr  
대표메일 : j12271@nate.com / 대표자 휴대폰 : 010-3634-5845



## 4\_ 설계경기

효자동 주변 지역의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청소년 독서문화공간 확충 및 시민 정보화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문화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으로 본 설계공모는 위와 같은 기능적 요구 사항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뛰어난 설계안을 구하기 위한 것임.

당선작 : (주)울그림 건축사사무소      강문수, 김희순 건축사  
 우수작 : (주)라인종합 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  
 가작 : (주)목양 건축사사무소      김경옥 건축사  
 + (주)포에이그림 건축사사무소      도대수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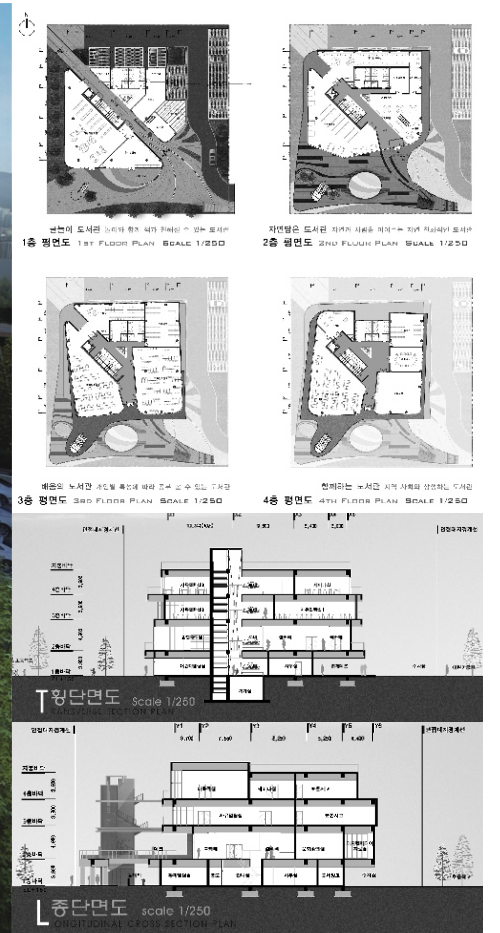
# 전주 효자동서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공모

**당선작**    강문수, 김희순 건축사 (주)울그림 건축사사무소



### 설계개요

명칭 : 전주 효자동서관 건립공사 설계경기  
 대지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4-9번지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2,500㎡  
 건축면적 : 1,414.02㎡  
 연면적 : 3,283.5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건폐율 : 56.60%  
 용적률 : 128.79%  
 층수 : 지하 2층 / 지상 4층  
 외부 마감 : 압출성형 시멘트판, 알루미늄복합패널, 금속편칭패널, 칼라복층유리  
 주차대수 : 17대(법정13대)  
 조경면적 : 44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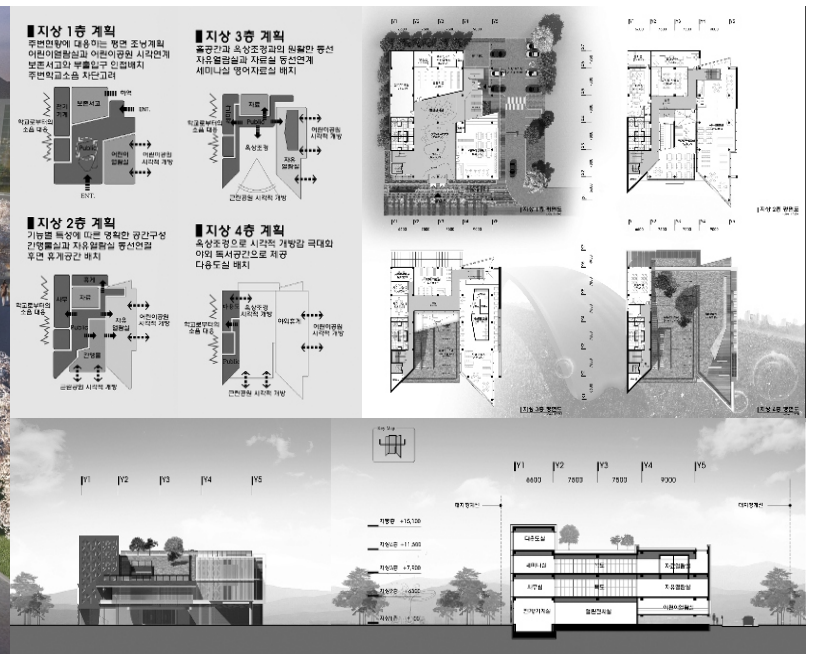


**우수작**    김남중 건축사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개요

사업명칭 : 효자동서관 건립공사  
 대지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4-9번지  
 용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건축규모 : 지상 4층, 연면적 3,306.55㎡  
 지역지구 : 자연농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2,500.00㎡  
 건축면적 : 1,196.17㎡  
 연면적 : 3,306.55㎡  
 조경면적 : 441.57㎡  
 건폐율 : 47.85%  
 용적률 : 132.26%  
 조경면적비율 : 17.66%  
 도로현황 : 8m도로(동측 진입도로)  
 주차개요 : 14대(장애인주차 1대포함)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로이복층유리, 수성페인트, 노출콘크리트  
 층고 : 1층 4.2M, 2~4층 3.6M



**가작**    김경옥 건축사 (주)목양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포에이그림 건축사사무소 도대수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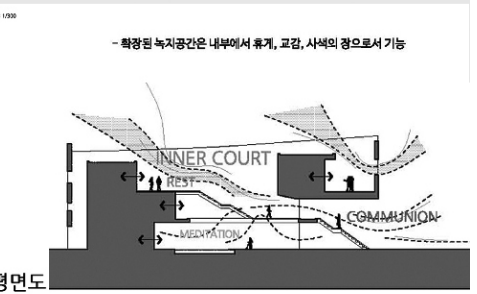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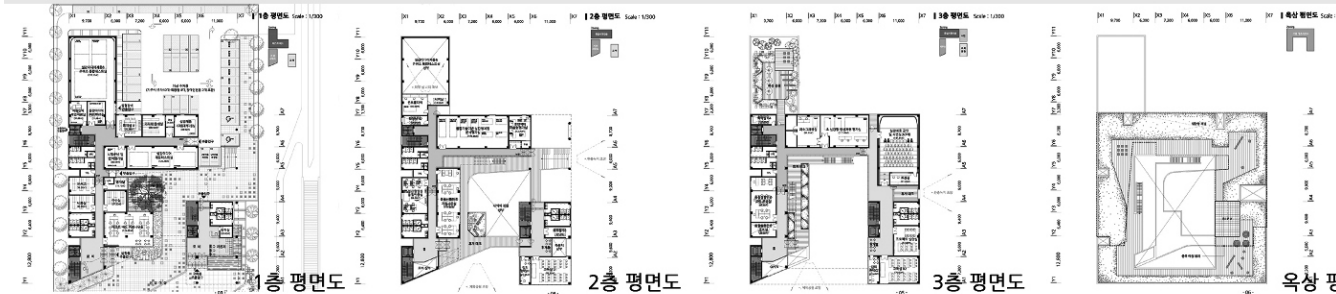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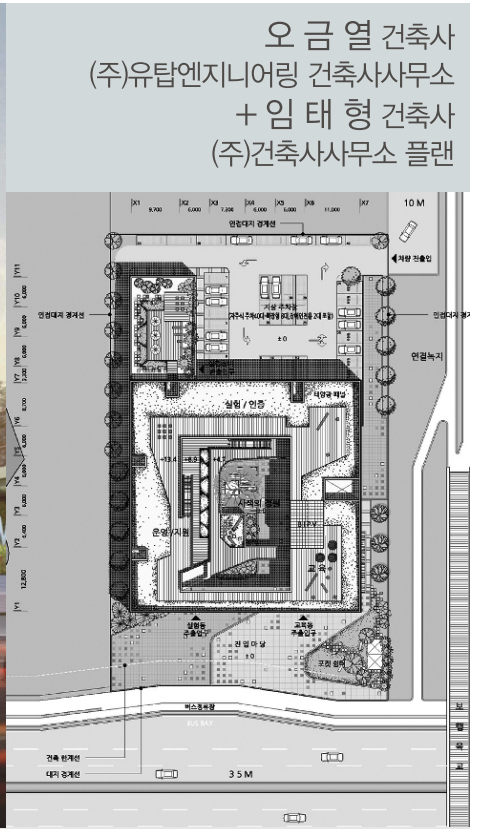
전남개발공사는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를 건축함에 있어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 조형미를 추구하고,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지향하고 경제성(관리 측면과 기능의 합리성)과 예술성을 갖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발주처: 전남개발공사 설계공모방식: 일반공개공모 (지역업체가점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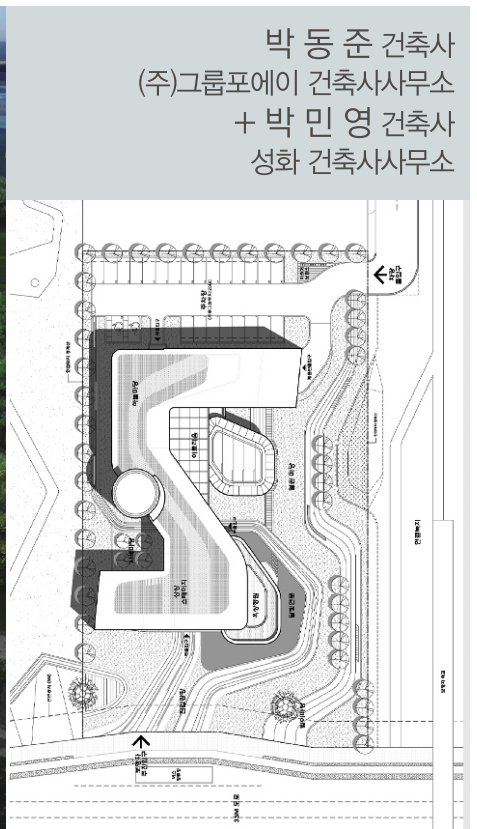
당선작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오금열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임태형 건축사  
 우수작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 성화 건축사사무소 박민영 건축사

# 실감미디어산업 기본조성센터 건축설계공모

## 당선작



## 우수작





# 건축물의 내풍설계에 대해서



김영문 교수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kym@jbn.u.ac.kr

제1부 : 바람(풍하중)에 대한 이해(제55호, 2014년 6월)  
제2부 : 건축물에 미치는 바람(풍하중)의 영향(제56호, 2014년 7월)  
제3부 : 바람(풍하중)의 영향을 예측하는 풍동실험

지금까지 건축물에 풍하중으로 작용하게 되는 바람의 성질, 그로 인한 영향과 극복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풍동 실험의 필요성과 사례를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공학적 특수성과 표현력 부족으로 다소 딱딱하게 서술되었지만, 건축물에 미치는 바람(풍하중)의 영향이 적지 않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3회에 거쳐 내풍설계 분야를 소개해 주신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문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 거주자의 사용성 안전 판단

앞서 연재된 글에서, 고층건축물에서 풍하중에 의한 동적응답으로 진동변위와 가속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진동변위는 정적인 변위(static displacement) 응답과 더불어 건물의 구조적 안전(structural safety)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가속도는 건물 거주자의 사용성 안전(serviceability safety)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용성 안전이란 건물 거주자가 느끼는 안락함(human comfort)을 뜻하며, 강풍이 부는 경우가 아닌데도 고층의 거주자가 현기증이나 두통 또는 배 멀미와 유사한 불편감 등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은 풍하중에 의한 건물의 진동발생 요소 중에서 가속도가 원인이라는 사실이 1980년대에 알려지게 되었다. 즉, 가속도가 거주자의 신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체의 균형감각기관을 자극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고층건물의 구조시스템은 풍하중 효과 즉, 풍하중이 작용할 때 건물에서 발생하는 진동변위와 가속도 응답 값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구조적 안전은 만족되더라도(변위응답이 허용기준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 사용성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속도 응답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조시스템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여 다시 검토하게 된다. 이 때,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 용도의 건물보다 더 엄격하게 사용성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고층건물의 내풍설계 관련 풍동실험을 해오면서, 풍하중에 대해서 구조적 안전은 만족하는데, 사용성 안전을 만족하지 못해 몇 번에 걸쳐서 구조시스템을 재검토 하게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왔다. 그만큼 고층건물의 내풍설계에서 사용성 안전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풍동실험의 필요성과 활용

제2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풍속방향의 변동풍속에 대해서는 실측이나 이론적 해석에 의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이를 근거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과 수치시뮬레이션(numerical simulation) 분야의 발전으로 2차원 물체 주위의 흐름이나 간단한 건물 형상의 경우는 풍동실험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의 3차원 건물, 특히 도심에 위치해서 주변의 건물 등으로 조도가 심할 경우에는, 변동 풍하중을 정확히 예측해서 동적응답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측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회전류인 와(vortex-shedding)로 인한 횡 방향의 변동 풍 하중(fluctuating across-wind load)이나, 건물의 후면에서 발생하는 후류(wake)에 의한 비틀림방향의 변동풍하중(fluctuating torsional-wind load)을 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이론적(해석적) 접근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풍동실험(wind-tunnel test)이다. 기법으로는, 대기경계층 내에서 불어오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순간풍속(평균풍속과 변동풍속의 합으로 이루어짐)의 지표면 조도에 따른 분포, 변동풍속성분이 증가되는 지표면 조도가 심한 대도시 도심에서 불어오는 풍속의 분포, 고층건물의 측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회전류인 와로 인한 횡방향의 변동풍하중, 건물의 후면에서 발생하는 비틀림방향의 변동풍하중 등을 구할 수 있는 신뢰되는 방법으로써 경계층 풍동 실험(boundary layer wind-tunnel test)이 알려져 있다.

풍동실험에서는 건물이 세워지는 지역의 실제의 자연 풍을 상사법칙(similarity law)에 따라서 모의한 바람(풍)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풍동 내에 불어넣게 된다. 이때 실험

대상 건물의 풍동모형과 주변 건물 등 조도상태를 모형으로 함께 풍동 내에 놓고, 풍향과 풍속을 변화시켜 가면서 대상 건물에 작용하는 정확한 풍하중을 구하게 되며, 이로부터 동적응답도 같이 구하게 된다.

## KOCED 대형풍동 실험센터(전북대학교 내)

실험 개요	실내에 소형 터널을 만들고 인공적으로 바람을 발생시켜 고층건물 모형과 장대교량 모형 등의 바람에 대한 영향 실험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내풍 안정성 평가 풍동실험(최대 높이 100층(400m) 건물의 축소시험)</li> <li>남서해안 지역의 해상 교량에 대한 내풍 안정성 확보를 위한 풍동실험 (최대경간 2000m 축소시험)</li> <li>지하철 등과 같은 지하구조물 환기/배기, 유독 물질 확산, 환경 오염물질 확산 등과 같은 방재분야 검토 풍동실험</li> <li>도시의 오염물질 확산, 국부지형의 영향평가(직경 4km 도시공간의 축소시험)</li> <li>교량 및 산업설비 내풍안전성 평가</li> </ul>
주요 실험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풍동 저속시험부 : 비교적 저속의 바람을 발생시켜 교량, 빌딩 등의 구조물 실험이나 지형모형 실험을 수행하는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험구간 : 40m(길이)×12m(폭)×2.5m(높이)</li> <li>풍속범위 : 0.3~12m/s</li> </ul> </li> <li>대형풍동 고속시험부 : 비교적 고속의 강한 바람을 발생시켜 고층빌딩의 실험이나 풍압 실험을 수행하는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험구간 : 20m(길이)×5m(폭)×2.5m(높이)</li> <li>풍속범위 : 0.5~30m/s</li> </ul> </li> <li>소형풍동 : 소규모 모형실험 및 연구용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험구간 : 5m(길이)×1m(폭)×1.5m(높이)</li> <li>풍속범위 : 0.3~20m/s</li> </ul> </li> </ul>
연구 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내 T:063-270-4813 / F:063-270-4814 / E: wind@koced.net



▲대형풍동 실험센터 전경



▲대형풍동 실험센터 내부투시도

## 내풍설계 및 풍동실험의 경험과 사례

언젠가, 풍하중에 의한 동적응답을 구하기 위한 풍동 실험을 협의하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그 후 다른 구조 설계자로부터 같은 건물에 대한 문의가 왔다. 알고 보니 처음에 문의했던 측에서는 풍동실험을 생략하는 대신 과다한 구조시스템으로 설계를 했고,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구조설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다시 풍동실험실을 찾은 것이었다. 결국, 풍동실험(풍력실험)을 해서 각 방향의 정확한 풍하중과 동적응답을 구해서 구조적 안전 및 사용성 안전 여부 확인함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건축주가 전북대학교 풍동실험실을 직접 방문해서 "건물공사비를 많이 절약하게 되어 고맙다"고 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다시 언급하지만, 고층건물의 내풍설계에서는 풍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사용성 안전까지 모두 만족하는지를 초기 예비설계 단계(preliminary design stage)에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비설계 단계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본 설계에 들어갈 때 뒤늦게 검토함으로써 내풍 안전성 특히 사용성 안전에 문제가 발견되어 곤란을 겪었던 사례를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반면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 도곡동 타워 팰리스 1차 풍동실험을 할 때가 1998년경이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오베어 럽(Ove Arup, Arup이라고도 함)의 Dr.Gibbon이었다. 초기예비설계단계에서부터 풍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사용성 안전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사용성 안전 문제여부에 따라 본 프로젝트의 구조시스템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기하였으며, 만약 사용성 안전을 만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구조시스템의 전면적 재검토에 따른 변경 및 풍진동 제어를 위한 제진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풍하중에 의해 구조시스템이 결정된다는 점을 예비설계단계에서 이미 정해 놓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했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앞선, 소위 선진국에선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선 처음이었던 사례일 것이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 프로젝트의 풍동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처음에 계획했던 구조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즉, 고층건물의 횡력저항시스템인 아웃리거(outtrigger)를 처음에는 상층부와 중간층 정도에 두 개 층에 걸쳐 계획했는데, 상층부의 아웃리거를 제거하고 한 개 층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아웃리거로 계획했던 상층부 해당 층을 아파트로 분양함으로써 설계 및 건설 비용절감 및 공기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외장재도 풍동실험에서 얻은 정확한 풍압력 값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과다설계를 방지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풍동실험 사례 : 광주아구장 천 피어스필드 실험



▲풍동실험실에서는 정확한 결과를 위해 실질적인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 결언

지금까지 3회 연재를 통해 풍하중이 고층건물에 작용하게 될 때 건물의 흔들림 즉, 진동 발생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바람이 분다고 건물이 흔들리겠는가? 지진하중에 견디게 설계되었으면 됐지, 내풍설계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강풍이 불어온다 해도 고층건물이라면 저층건물보다는 덜 흔들릴 것 아닌가? 등등의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그렇지 않다고 일일이 설명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초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 및 사무실 건물 등이 세워졌고, 그 과정에서 SOM, ARUP 등 해외 유명 종합컨설팅회사들이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선진기술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에선 미처 생각도 못했던 여러 기술들이 시도되기도 했다. 초기 예비설계단계에서, 풍하중으로 인한 고층건물의 가속도 응답을 예측하여 사용성 안전에 대한 만큼 여부를 검증했던 사항도 그 중 일부였을 것이다. '도대체 가속도 응답이 뭐고 또 사용성 안전이 무슨 말인가?'하며 생소해 하던 분위기였다.

그런데 요즘은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풍하중의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구조적 안전 및 사용성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검토의 당위성 등은 대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쉬움이 있다면 국내에 세워지거나 세워진 대부분의 고층건물에 대한 기본설계를 아직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내의 선진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안타까움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소위 전문가들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연재 해주신 김영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가치를 창출한다.” \_ 서문용진 건축사

전라북도 전주 서문 건축사사무소 서문용진 건축사는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설계업무 등을 배워가며 건축사 시험에 몇 번의 도전 끝에 자격을 취득했다고 한다. 정통한 건축학도의 길을 아니지만 건축설계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만의 노하우와 철학을 정립해가고 있는 서문용진 건축사...

지난 8월 5일 편집위원들이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야기 나누었다.

## 건축사로서 걸어오신 길

건축설계에 대한 막연한 이상으로 건축에 입문하였으나, 대학을 졸업하고는 시공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설계업무 등의 경험을 쌓으며 몇 번의 도전 끝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사실 설계 보다는 감리 분야에 경험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감리회사에 있다 보니 설계사무소에서 배운 경험이 충분치 않아 개업을 좀 늦게 한 편입니다. 2006년도에 건축사 업무를 시작해서 조그마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며, 배우면서 건축설계에 대해 나름대로의 철학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확립하신 건축 철학에 대해

사실 건축설계에 대한 입문이 조금 늦은 편이라 아직까지는 확립된 철학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나만의 철학을 갖고자 수없이 공부하고 배우며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창시절의 꿈처럼 내 자신이 이상적인 건축물을 직접 설계해 보는 것이 희망사항이지만, 개업 후 건축주 의도에 맞추다 보니 그동안 배우며 생각해왔던 건축철학이 무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개념과 디자인이 각광받기 시작한 점을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대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 신건축자재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또한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건축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

건축사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이 제 역할을 다하며 대중들에게 또는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축작품들을 설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는 건축주 의도에 치우쳐 더 중요한 부분을 놓쳐 문제가 되는 경우 인 것 같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전문인으로서의 고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와 그 이유

학부시절에 배웠던 세계적인 거장이나 국내 대표 건축사분들이 생각나지만, 깊게 접하지 못한 관계로 누구라고 쉽게 대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멋진 작품세계를 만들어 가는 분들을 존경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땀의 의미와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건축사들이 존경의 대상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 지금까지 설계하신 작품들 중에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신다면

대표적인 작품이라 하기에 뭐 하지만 최근에 작업을 끝낸 ‘익산 금마초등학교다목적 체육관’을 꼽고 싶습니다. 규모에 비해 작업 기간이 길었고, 금마고도문화지역특성에 따라 지역심을 거치며 많은 고민을 했던 작품입니다. 외관디자인을 고도문화에 걸맞게 하기에는 주변 환경 및 여건이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해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향후 준공시 이 건물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어 낼지 궁금해집니다. 이 외에도 개업 후 바로 진행했던 ‘군산 미장초등학교 기본계획’과 전북 장수에서 가장 큰 건축물인 ‘장수의료원 신축공사’, 수상복합 건축물인 ‘군산경장동스마트시티(미작공)’가 있습니다.

##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

전북 정읍 시골학교의 작은 도서관을 설계했던 기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골마을에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증축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주민들의 관심도와 교장선생님의 많은 제안을 들으면서 새삼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적 초등학교에 다녔던 추억도 등나무 아래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특별히 내놓고 하는 봉사활동은 없습니다만,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여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당에 다니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사로서 사회에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거는 기대

건축문화를 이끌어 가는 건축사로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는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해 질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소통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선배는 장을 만들고 후배는 적극 참여하여 서로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건축사로서 긍지를 갖고 건축문화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구나 하는 바람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건축사로서 계획은 설계 작품을 하는 공간을 만들고 작은 일에서도 인정받는 건축사가 되는 것이 앞으로 저의 계획입니다.

취재 : 강동영, 박주현,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 기자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전북/서문 건축사사무소 서문용진 건축사



▲ 건축사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서문용진 건축사



▲ 장수보건의료원(2008)

## 서문용진 건축사가 건축 설계한 대표작품들



▲ 군산 미장초등학교(2006)



▲ 군산 경장동스마트시티(2012)



▲ 익산 금마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2014)



#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주최, “2014 대학생 디자인 캠프” 참가기

- 지난 6월 30일부터 4박 5일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는 광주·전남건축학회(회장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염환석 교수) 주최로 ‘2014 대학생 디자인 캠프’가 열렸다. 이번 디자인 캠프는 광주전남지역 4년~5년제 대학교 건축전공 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성과의 공존’이란 주제로 진행되었고 전남 여수시 진남관 일대를 계획 대상으로 삼아 아이디어를 찾고자 했다. 참가 학생들은 서로 고민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튜터 선생님들의 지도로 학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 2014 건축디자인캠프 참가기(1)

이영택 학생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바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막 자유로운 방학을 즐기려는 시점에서 시작된 건축디자인캠프가 마냥 좋을 리는 없었다. 시작 하기 전에는 집에서 뒹굴고 싶은 심정이 가득했었지만, 건축디자인캠프를 수료한 지금은 ‘4박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다시는 경험하기 힘든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처음 이 캠프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선배로부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과 학교라는 틀 안에서만 배웠던 건축을 보다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 참가하게 되었다. 개회식과 함께 시작된 건축디자인캠프는 긴장도 되면서 한편으론 기대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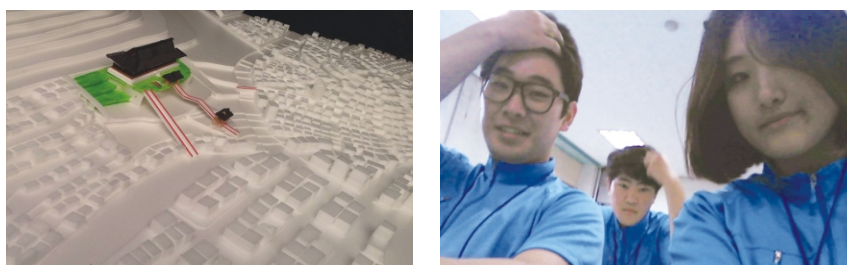
전남지역 각 학교에서 모인 학생들과 교수님, 건축사님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캠프 기간 동안에 수행할 과제로 ‘현대성과 역사성의 공존’이라는 주제가 주어졌는데, 어렵기도 했지만 이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소재였기에 힘들다는 생각보다 흥미로움이 더 강하게 있었다. 우리 조는 짧은 기간이었기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에 많은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보니 대지조사부터 분석 그리고 결과물 도출까지의 과정이 다른 조보다 느렸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보다 더 많았지만 시간에 쫓기다보니 그것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 속상하고 아쉬웠다.

하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은 많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조원들과의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비판하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면서 대화의 ‘기술’을 배워갈 수 있었다. 어색해야 정상인 우리들 사이, 이상하게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았던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하나가 되어가면서 즐겁게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순천대 이동희 교수님과 가온 건축의 최시화 교수님으로부터 도움과 지원은 우리 조원들에게 큰 활력과 같은 요소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번 캠프를 통해 얻은 인연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5조의 대표 3학년 **이영택**    5조의 꽃돌이 3학년 **조권영**    5조의 짬순이 4학년 **김민주**    5조의 메론빵 3학년 **구진경**    5조의 막내동이 2학년 **김태완**    5조의 스무살 1학년 **김태훈**



## 2014 건축디자인캠프 참가기(2)

송유종 학생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디자인캠프 참여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다른 지역의 타 대학 학생들과 같이 4박 5일 동안 한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건축적으로 생각하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설계로 나타내는 프로그램이었다.

여러 타 대학 학생들과 튜터님들이 접수를 하였고 개회식을 시작하면서 긴장이 되었다. 이번 주제는 ‘역사성과 현대성의 공존’ 이었는데 정말 너무 어려운 주제였다. 그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접근을 못하고 고민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그때 튜터님들이 서포터로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설계 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잡아주셨고, 다음 단계로 진행 되는 것까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며,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많은 토론을 나누었다.

설계는 창작의 고통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거나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면 설계는 순조롭게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물 보다는 진행 과정을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 캠프의 목적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타 대학 학생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이나 의견들을 들어보니 나만의 생각이 아닌 ‘아 이런 식으로도 생각 할 수 있구나!’ 라면서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내가 모르는 건축적 지식과 사례를 들으며 반성도 하고 새로운 각오도 했다. 그렇듯 내가 모르던 사실을 보고 듣고 쓰면서 정말 배움의 자세로 디자인 캠프에 참여했다.

중간 크리틱이 끝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우리는 세세한 내용을 짜기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설계방향과 내용을 정해나서 그런지 세세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5일차 최종크리틱 날이었다. 짧은 시간에 모형과 판넬을 만들려고 하니 디테일이 너무 부족했지만 우리 조가 하고 자하는 내용의 표현은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했다. 아쉬운점도 많았지만 보람도 컸다는 말이다.

이번 디자인캠프에서 느꼈던 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기회로 내가 알고 있던 건축적인 지식을 좀 더 개발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건축이 재미있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 설계 초보자로써 밑거름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준 디자인캠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디자인 캠프에 다시 참여해보고 싶다. 먼 훗날에는 당당한 튜터로 참여해 보고 싶기도 하다.



### 학생기고

양태선 학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우리 동아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0년 명맥을 이어온 건축학과 동아리의 폐쇄조치...

안전검사 후 무엇 때문에 폐쇄조치가 내려졌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래서 과사무실에 물어보니, 지하 동아리 방에 침구류와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이유로 폐쇄조치가 내려졌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동아리 폐쇄 조치에 당황한 건축과 6개 동아리 회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동아리 폐쇄 조치 공문을 복사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대표 간부들을 찾아 다녔다. 동아리 회장들이 모여 학생복지팀, 시설지원팀, 총무팀 순으로 방문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쭙보았다. 폐쇄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건 시설지원팀의 소방담당관계자였다.

위생, 침구류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과대학교 지하에는 대피로가 없어서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동아리 사이의 복도도 좁을 뿐더러 지상하고 연결되어있는

계단 하나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후 “지하 동아리방 중 하나가 공과대학교 엘리베이터랑 연결되는 기계실 문이 있는데, 거기를 피난시에만 대피로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했다. 하지만 소방담당관계자는 “공과대학교 지하 도면을 보았는데, 지하 동아리 뒤에 있는 기계실은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위험하다.”며, “여기 시설지원팀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고, 공과대학 학사지원팀에게 건의 해보는게 빠를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던 중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공과대학 학장님과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건축과 지하 동아리 폐쇄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결과 공과대학 학장님은 ‘건축과 5층에 자리가 나오면 그 때 지하 동아리를 지상으로 옮기자’라는 답변을 주었다. 현재 공과대학 5층 건축과는 각 학년 설계실과 공학전용 설계실, 컴퓨터공학 동아리와 강의실로 채워져 있어 어느 실 하나 빼기가 힘든 상황이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각 동아리 회장들이 다시 모여 공과대학교에 비어있는 실에 대한

조사와 지하 동아리 뒤편에 배치된 기계실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중앙동아리, 생명자원과학대학 지하 동아리는 없어진 상태며, 의과대학 동아리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건축과 지하 동아리는 창고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잠시 폐쇄조치를 막은 상태이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허나 애초부터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동아리실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학교 측에 1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마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향후 학교 측의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해 본다.





## 2014광주비엔날레 개막, 한 달 앞으로 다가와.

-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2014년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개막 한 달을 앞두고 본격적인 작품 설치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손님 맞을 준비를 끝낸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작품이 전시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행사들로 광주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비엔날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이 열리는 9월 4일에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서 식전 음식 나눔 퍼포먼스 등에 이어 오후 7시 30분 공식 행사의 막이 오른다. 시민 1500여 명과 함께 하는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 연출되며, 이날 2014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명예홍보대사 정우성이 참석해 위촉패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의 일환인 8개의 퍼포먼스를 금남로, 전남대 등 광주 시내 일원 곳곳에서 8월과 9월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 입지분석 지원체계(kopss) 구축

- 토지, 건축물대장 정보 등 통합해 공간계획 지원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초,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공간 정보를 통합해 토지, 주택, 건축분야 등 각종도시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그동안 축적해온 공간 정보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다차원공간정보, 인구정보 등이며, 시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국비 6300만원을 포함해 2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공간입지분석지원체계(kopss)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간입지분석지원체계는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정비계획, 공공시설계획, 경관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계획 지원시스템이다.

구축 사업을 마치면 통합된 공간 정보와 첨단정보기술과 gis기반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해 시민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각종 공간계획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폴리Ⅱ, 제4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 수상

- 시민의 협력이 바탕이 돼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초 '광주폴리Ⅱ사업'이 제4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공공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등이 주최하며, 해마다 공모와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심사에서 광주폴리Ⅱ 사업은 규모 면에서 다소 작지만 기획부터 설치, 홍보, 출판,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모든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지명도 높은 인사가 참여하는 범세계적 프로젝트로 추진됐고 시민의 협력이 바탕이 돼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광주폴리는 지난 2011년 디자인비엔날레 일환으로 추진한 1차 사업을 통해 11개 폴리가 광주읍성터 주변에 설치됐다. 2012년부터 추진한 2차 사업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권, 광주공원, 광주천, 광주역, 지하철 객차 등 공공공간에 8개가 설치돼 총 19개가 조성돼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2년에도 계림동 푸른길 공원 주변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심상봉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전주시건축사회, 무료 건축상담 등 재능기부나서

-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해피하우스 인후센터와, 완산센터, 노송센터에서 무료 건축상담



▲ 인후센터



▲ 완산센터



▲ 노송센터

전주시건축사회(회장 전병갑)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주시 관내 해피하우스 인후센터와 완산센터, 노송센터에서 무료건축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재능기부는 전주시건축사회에서 전주시와 쾌적한 주거 문화실현에 상호협력할 것에 대한 협약(해피하우스 사업협약)에 따라 이루어 졌다.

## 전남건축사회 주최, '2014년 국제 패시브하우스 심포지엄' 열려

- 지난 7월 11일 전남 광양시 중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



국제 패시브하우스 심포지엄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라남도 광양에서도 개최됐다. 지난 7월 11일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국원식)와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양지역건축사회,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전남지회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2014년 국제 패시브하우스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날 전남건축사회 국원식 회장의 개회선언과 개회사, 광양시 정현복 시장의 축사가 이어진 후 본격적인 심포지엄 시작됐다.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고공규 회장의 '패시브하우스의 원리와 이해'라는 주제의 강연과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전남지회장 박병열 건축사의 '한옥에 깃든 패시브하우스 요소들'이란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북미 패시브하우스 현황', '북미 패시브하우스 목조건축 사례' 등이 River Architects의 James P.Hartford에 의해 소개 됐다.

한편 이번 강연에 150여명의 시민과 건축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진행

- 8월 29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공모대상 공고일 현재(2014.6.30) 사용승인된 녹색건축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색건축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생활 속에서 녹색건축에 대한 성과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문화 행사로 '녹색건축대전'을 공모 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및 자격은 공고일 현재(2014.6.30) 사용승인된 녹색건축물(리모델링 포함)로 출품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이다. 공모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정(2014)	비고
참가신청	6월 30일(월) ~ 8월 29일(금)	우편 및 방문접수
1차 심사결과 발표	9월 11일(목)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최종 심사결과 발표	10월 2일(목)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een2014.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02-397-5517로 하면 된다.

## 천일석재 CHONIL STONE



음수대 / 음수전 / 블라드 / 의자석 / 간판석

### 천일석재 음수대 7대 특징

1. 통돌을 사용하여 설치가 간편하다.
2. 내부가 설치되어 있어 연결만 하면 된다.
3. 수도꼭지 고정시 교체하는데 편리하다.
4.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 설치후 사용 중 다른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6. 천재지변이나 임의파손이 아닌경우 반 영구적이다.
7. 국내석으로만 제작한다.

천일석재대표 강 현 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길 77 (구,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40-13)  
 TEL : 063)862-0310, 0814 (야간) 841-5232 FAX : 063)862-0309  
 E-mail : chonilstone@hanmail.net / www.chonil0310.com



### 광주건축사회, 광주 남구노인복지관에 봉사활동 나서

— 지난 7월 28일 안길전 회장 등 회원 30여명 중복 맞이해 노인 300여명에 배식봉사



광주건축사회는(회장 안길전) 지난 7월 28일 광주 남구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안길전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이 중복을 맞이해 노인 300여명에게 배식봉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는 최영호 남구청장도 동참했다. 안길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이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이웃들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이상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광주건축사회, 광주·후쿠오카 교류전 출품작 모집공고

— 13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로 작품 제출은 8월 29일까지

광주건축사회는 일본 JIA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사업 일환으로 광주·후쿠오카 건축작품 교류전을 진행한다. 출품작품은 2013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로 광주건축사회원이면 누구나 출품가능하다. 작품규격은 JPEG, PSD 파일(규격 A1사이즈 1판 / 594×841mm)로 제출기간은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이메일(gjkira@empas.com)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출품하고자 하는 건축사회원들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팩스(062-528-0026) 또는 이메일(gjkira@empas.com)로 접수하면 된다.

### 광주건축사회, 민간발주 건축설계업무의 적정 대가에 관한 실태조사 독려

— 전체 회원 대상 오는 8월 말까지 실태조사협조 요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157299번 참고

광주건축사회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설 건축연구원에서 수행중인 ‘민간발주 건축설계업무의 적정 대가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실태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건축사 업역 중 설계대가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건축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건축사 회원들이 대상이며, 조사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자료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57299번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광주건축사회, 하계 임원 야유회 개최

— 지난 7월 19일 역대 회장 및 임원 등 4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전북 변산에서 진행



광주건축사회(회장 안길전)는 지난 7월 19일 전라북도 변산에서 2014년도 하계 임원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역대 회장들을 비롯한 임직원, 구협의회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였고 내변산 트레킹을 하며 광주건축사회원들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광주 푸른길 주제로 등록접수 9월 3일부터 12일까지 / 작품접수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는 2014 광주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상금 1200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푸른길 공원과 함께하는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도시재생디자인(주거+문화)’이란 주제로, 공모분야는 ‘현지개량 방식의 창조마을, 희망만들기 사업’과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낙후된 구 도심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을 방안’,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연계사업’, ‘구도심 상가와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활성화 사업’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등록 방법은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에서 상세요강 및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4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062-521-0025~6)으로 문의 바란다.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1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개최

— 대상 100만원,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주제로 오는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제11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골목길)을 주제로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고 작품접수는 오는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12"×16" 사이즈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작 1점에는 상장 및 상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 2점에는 상장 및 상금 50만 원 지급되는 등 총 상금 400여만 원이 걸려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문의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062)521-0025~6)로 하면 된다.

한편 사진공모전과 함께 진행한 제11회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는 지난 8월 1일 접수 결과 총 750여점(작년대비 100여점 늘어나)이 접수되어 광주지역의 명실상부한 공모전 행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수상작 14점 선정

— 최우수작 전북대 김진·손유리 학생의 “한 빛”, 전주에 빛을 더하다”

전주시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의 입상작 14점을 선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이 직접 사업 발굴에 참여하는 기회제공을 위해 ‘시민이 그리면 전주시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공모했으며, 총 39건의 응모작품 가운데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1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애는 전북대학교 김진·손유리의 “한 빛, 전주에 빛을 더하다”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거점으로 오방색 빛을 통한 영화의 거리, 동문문화거리와의 연계 활성화 사업이다. 특히 오방색을 컨셉으로 건축된 한국전통문화전당 외관에 걸맞는 오방색 테마공원 및 오방거리를 조성, 옛 도심 경관의 시각적인 통일을 이루고 공간 및 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내용으로 빛을 통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 이은주 세무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세무 관련 자문위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대표

저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무관련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제공.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등  
불복대행 양도, 상속 등 재산세제의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동구청 및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현)북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현)광주지방 국세청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94 / 4층  
(서광주세무서 앞)  
전 화 : 062-383-0002 팩스 : 062-383-1181  
휴대폰 : 010-3256-9759  
e-mail : eunjootax@hanmail.net

## 하나오앤씨

대표 문 지 훈

최적의 설계 환경에 맞는  
복사기 / 프린터 / 컴퓨터 / 소모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  
귀하의 사무실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품질은 최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 신도리코 / 케논 / 제록스 / HP

판매   임대	복합기	프린터	컴퓨터	시공	네트워크	프로젝터	서버
프로그램	AutoCAD	CADPower	Revit	Adobe	3D-Max	Sketchup	각종 프로그램
전산소모품	토너	복사용지	유지관리	A/S	수리	설치	유지보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로 86번길 7-7  
C.P 010-6694-2233  
TEL 062-374-6525 FAX 062-374-6526  
E-MAIL - hanaoc@hanmail.net



### 전북건축사회, 강미현 건축사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출판

— 건축가가 들려주는 후회없는 집짓기, 꼭 필요한 것만 담은 집짓기 실전가이드



강미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예감)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펴냈다. 다양한 단독주택을 설계하면서 수많은 건축주가 겪는 시행착오를 옆에서 지켜 본 경험으로 후회없는 집짓기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강건축사는 건축주가 머릿 속에 짓는 집, 건축가가 종이 위에 그린 집, 시공자가 대지 위에 쌓는 집 등이 삼위 일체를 이룰때 후회 없는 집이 지어 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효형출판 2014년 7월 발행, 정가 1,2000원(12면 책소개 참조)

####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전회**  
— 한진수 건축사 / (주)토방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 14번길 12

**\* 퇴회**  
— 공갑열 건축사 / 동남 건축사사무소

**\* 변경(사무소명 & 소재지)**  
— 왕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에  
광주 북구 유림로 147-1 2층(동림동)  
— 안성섭 건축사 / (주)우도종합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개2로9번길 29-13(금호동)

**\* 변경(소재지)**  
— 이주경 건축사 /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내방로 161번길 11 2층 (쌍촌동)  
— 조성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빛  
광주 남구 대남대로 351,  
동강오피스텔 702호(월산동)

#### News 전남건축사회 동정

**\* 입회**  
— 강정성 건축사 / 이지 건축사사무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5로 34번길 15-1

**\* 변경**  
— 문경숙 건축사 / 문 건축사사무소  
전남 여수시 예올마루로 35-60 401호

#### News 전북건축사회 동정

**\* 변경(소재지)**  
— 김중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1길 10-34(1층)  
— 김명국 건축사 / 신 건축사사무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69(2층)

**\* 부고**  
— 유기천 건축사 / 성지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7월 13일

#### 광주건축사회 공지사향

##### ○디자인자문위원회 심의운영 변경사항 알림

광주건축사회 제11기 디자인자문위원 간담회(2014.7.23) 개최결과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심의 접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심의운영 변경사항

- 설계디자인 의도 및 주변과의 조화를 검토한 디자인설명서를 추가접수
- ※ 디자인 설명서 양식 디자인자문 웹하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면도에 마감재료 및 그에 따른 색상을 명확히 표기할 것.
- 제출서류(자문신청서, 설계계약서, PDF 도면, 디자인설명서) 누락시 반려기로 함.
- 우수 디자인 건축물을 선정하여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시상예정.
- 주변경관을 포함한 현장사진을 필히 첨부할 것.

변경사항 시행일 : 2014. 8. 6일(수) 제32회 디자인자문회의부터 적용.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 등록관련 안내

광주건축사회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 교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교육 이수 시간에 대한 최신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 등록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 내용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에 따르면 책임점검자는 8시간 이내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교육을 3시간(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 최신 내용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3시간 이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교육이수조건이 충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향후 교육 이수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교육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점검 및 점검자 각각 8시간, 4시간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012호, 환경부공고 제2014-492호, 2014.08.04~08.24)

#####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평가가능 대상이 공동주택·업무용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평가항목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 취득 의무대상을 인증이 필수적인 용도로 한정하고자 함. 또한, 주택법 개정·시행('14.6.25)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이 법제화 되어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에너지성능 평가항목 개정 (안 별표 1~7,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에 따라 '에너지성능' 분야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를 공동주택·업무용에서 모든 용도로 확대 반영
- 나. 공공건축물 인증취득 의무대상 용도 개정 (제7조)  
공공건축물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인증이 필수적인 용도로 한정
- 다. 공동주택성능등급 관련 주택법 신설사항 반영 (제5조)  
주택법 개정·시행('14.6.25)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이 법제화 되어 관련 규정 정비
- 라. 인증제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동일 근거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내 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운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운영관련 규정 신설

####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호, 2014.08.04~08.25)

##### 1. 개정이유

경관법 개정('14.2.7 시행)으로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 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경관계획 관련 규정 개정 등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한 확대(제1장 제4절)  
인구 10만 초과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의무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권한 부여
- 나. 법령과 다른 일부 용어를 법령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제4장, 제5장)  
경관계획을 경관계획으로 변경하고,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변경다.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대상 중 "특정지역"에 관한 부분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중복 되므로 삭제(제6장)  
\* 특정지역, 특정경관유형(역사문화, 농어촌, 자연 등), 특정경관요소(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계획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9호, 2014.08.04~08.25)

#####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일원화 시키고, 설계 기본 치수단위를 '13.7.15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반자높이 일원화(안 제21조제1항)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2m 이상으로 일원화 콘크리트벽식 2.2m 이상, 라멘조 및 철골조 2.4m 이상
- 나. 설계 기본 치수단위(모듈) 개정(안 제15조, 제20조제1항)  
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를 1M 증분치에서 M/2 증분치로 조정
- 다. 기타 오기 정정(안 별표 1)  
단지조감도 축척 삭제 및 용어 정비(용적율→용적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및 공동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 521-0025~6 F. 062) 528-0026

###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창간발행인 :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편 집 인 : 서재형  
 전 담 기 자 : 박승국  
 편 집 위 원 :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중호, 양우현  
 등 록 번 호 :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 월간  
 등 록 일 자 : 2010-01-25  
 인쇄 · 제작 : 원일인쇄 T.062)228-7813  
 광 고 신 청 : T.062)521-0025



#### 표 | 지 | 설 | 명

#### 건축사의 '소'

건축사(建築士) 본연의 업무영역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3,500,000원
강현녀 천일석재	1,100,000원
한국씨아이엠(주)	350,000원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100,000원

####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나를 키워 준 소쇄원



전남 담양 지곡리에 있는 소쇄원은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스승인 조광조의 유배과정을 지켜보면서 낙향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자연속에서 살기위해 1534년~1542년에 만든 정원으로 조선중기의 대표적 별서정원의 하나이다. 크게 정원의 중심 광풍각(사랑채)의 계곡정원, 애양단의 앞마당정원, 오곡문과 매대의 정원, 제월당(안채)의 안마당정원,부원당터의 생활정원 등 다섯 공간으로 나뉘어진다.

내가 담양의 소쇄원과 인연을 맺게 된 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나나 보다. 물론 대학시절에 배운 윤국병 조경사라는 책을 통해 미리 접하기는 했지만, 소쇄원복원연구용역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정원을 직접 찾은 것이 1983년 가을로 기억한다.

용역 수행 당시의 잊을 수 없는 충격 두 가지가 지금도 생생한데, 하나는 담양으로 답사갔다가 광주의 극장에서 본 영화 부시맨의 우스꽝스러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 맞닥뜨린 소쇄원이 왜 이리 조그마할까 하는 의아함이였다. 원주민인 부시맨이 하늘에서 떨어진 코카콜라병의 주인을 찾아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는 아프리카문화와의 충격이었고, 윤국병 조경사에서 도면까지 제시하며 자세하게 설명한 그래서 무척 큰 곳인 줄 알았던 소쇄원이 구석구석 몸으로 누벼도 정작 조그만 산골마을을 크기라는 게 당시에는 무엇인지 모를 충격이였다.(나중에 보니 중국문화와의 충격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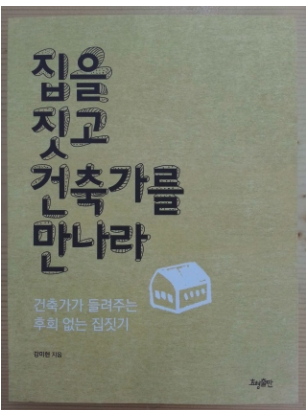
지어진지 450여년. 당시의 소쇄원은 양산보 후손들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경시설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주요 건물과 돌, 내와 풍광만이 남아 있어 소쇄원도가 전하는 참모습을 찾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유병림, 황기원, 양윤재 교수님과 대학원생 등 연구진의 복원연구를 통해 소쇄원이 위치한 담양 지곡리의 지형·공간·경관, 양산보의 삶과 철학, 당시의 사회상 등을 고증함으로써 양산보가 도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은둔과 자연합일을 주제로 건물, 시설, 공간, 이름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계획하여 배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소쇄원복원 연구진 참여는 대학원생이던 나에게 우리 한국문화와 역사를 알고 사랑하게 해준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내가 맡은 식생조사부분의 경우 450여년의 흐름 속에 자취가 사라진 당시 조경수목과 초화류를 제대로 알아내기 어려웠으며, 소쇄원도와 더불어 1474년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을 바탕으로 나무와 꽃을 보는 선조들의 마음가짐으로 소쇄원의 식생을 해석하며 번민으로 고통스럽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의 복원 연구가 소쇄원의 참모습을 왜곡시키지는 않았을까 하는 조바심과 염려가 늘 떠나지 않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 업무나 가족 휴가 등으로 광주 무등산 언저리를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담양 소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어느 때인가 소쇄원에서 탐방하다가 회사 동료나 지인을 우연히 만나 근황을 함께 나누던 기쁨도 맛보았다.

대숲, 연못, 대봉대(원두막), 흙돌담, 폭포와 바위, 물흙통, 애양단, 개울, 오곡문, 매대(화계), 석가산, 광풍각, 담장, 제월당, 석축, 나무다리 하나하나가 정겨웠다.

### 책 소개



###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건축가가 들려주는 후회 없는 집짓기)」

강미현 건축사  
김미현 저 효형출판 2014.07.05. 건축사사무소 예감(전북 전주)

사무실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설계 그 중에서도 주택을 설계할 때 건축주를 자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설계비는 턱없이 적고요. 그래서 건축주와의 미팅시간을 줄이기 위한 교육지책을 씁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주와의

소통창구로 인터넷에 비공개카페를 만듭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주죠. 그 숙제의 내용이 바로 책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가며 설계를 하게 됩니다. 또 실시설계나 감리시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일들을 담았습니다.

건축주를 위한 책이기 보다, 설계자를 위한 책인 것이죠.

책이 나오니 건축주들이 더욱 안스러워집니다.

집 한번 짓기가 이렇게 힘들겠구나..하는 생각이 더 드네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더 합니다.

좋은 집도 나쁜 집도 결국 우리 설계자의 손을 거치게 되니까요.

김미현 건축사님의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편집자 주>

### 건축사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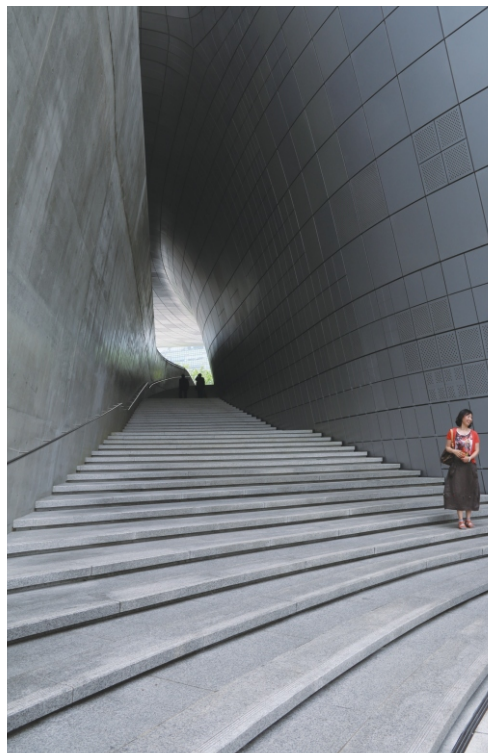


2014. 08. 01 광주의 하늘

요즘의 하늘은 어릴적 하늘과는 사뭇 다르다. 회색의 짙은 하늘이 그러하다. 그래서 구름진 파란하늘이 더 반갑다.

박종호 건축사 작 유민 건축사사무소(전남)

### 사진속 이야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마치 깊은 계곡에 돌맹이 하나 던져 물의 파장이 생기듯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을 주는... 전체적으로 요상한 건축물 DDP

곽승국 전담기자 작